가야산국립공원구역 조정과 관련한 건의문

성산가야의 고도 성주군을 상징하는 산이면서 예로부터 『조선팔경』, 『한국의 8승지』로 이름나 있는 가야산은 기이하게 형성된 상아덤과 만물상 등 기암괴석으로 산세가 웅장하고 수려할 뿐만 아니라 울창한 수목과 야생화, 동물이 살고 있는 천연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가야의 전설을 간직하면서,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법수사지와 마애불을 비롯한 대찰과 절터가 골골마다 산재한 불교문화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가야산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영산인 가야산국립공원 주변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하느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 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희망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지난 1972년 가야산 일원이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 군민들은 지역에 국립 공원이 있다는 자부심과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에 큰 도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가야산 인근 지역은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지역 개발에서 밀려나 개발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2003년에 공원구역을 재조정할 때 주민들은 이제야 그동안 겪어온 생활상 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이 크게 나아질 것이란 일말의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재조정된 구역과 주변지역 개발의 방향 및 내용 등이 지역주민의 기대에 크게 미흡하게 이루어져, 이제 성주군민과 주변 지역 주민들은 공원계획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군 의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절박하고도 간곡한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가야산국립공원구역중 우리군 지역이 31.127㎢로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3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는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하거나, 공원경계부에 있는 사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야산에 소재한 각종 가야문화와 불교문화의 유적 보전과 정비, 가야산 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이들 문화유적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관광지화 사업으로서 그동안 폐쇄되었던 등산로를 개방하고 각종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중·장기 개발계획, 중앙 및 도단위 개발계획, 대구 근교권 관광개발 등과 연계되어 대규모 투자가 계획된 사업지구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공익적 차원에서 공원구역 지정에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자연자원 보존과 관리를 기본방침으로 하는 국립 공원관리 문제와 상충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원 주변지역 주민은 물론 5만여 성주군민 모두가 지역발전과 생계유지를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과 해결을 열망하는 중차대한 현안사항임을 십분 감안하시어 공원관리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주 군민이 여망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전향적이면서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시에는 우리 군의회는 군민과 연대하여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지역 발전의 명운을 걸고 적극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 월 26일

성주군의회의원 일동